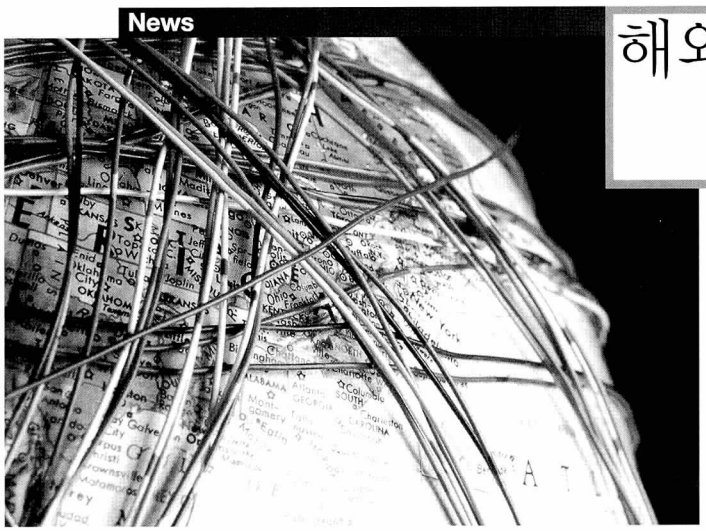


해외

애플 아이튠즈 다운로드 10억곡 돌파

애플 컴퓨터는 자사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의 악곡 다운로드 수가 누계 10억곡을 돌파했다고 지난 2월 23일(현지시각)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는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 제조업체인 애플이 온라인 뮤직 스토어를 개설한 지 3년만의 성과이다.

10억째 다운로드 된 곡목은 영국 록 그룹 콜드플레이의 노래 '스피드 오브 사운드'였다.

이와 관련 애플 스티브 잡스 CEO는 "합법적인 음원 구입이 10억곡을 돌파한 것은 해적판에 골머리를 앓던 음반업계에 희소식"이라며 "미래 음악 전송방식이 CD로부터 인터넷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지난 10월부터 아이튠즈에서 제공중인 비디오 다운로드 수 누계가 1500만건을 넘어섰다고 함께 발표했다.

CSR, UWB관련 '멀티밴드 OFDM' 지지

영국의 반도체 업체인 CSR은 지난 2월 24일, 차세대 블루투스에 이용하는 광대역 무선 UWB(Ultra WideBand) 기술로서 '와이미디어 얼라이언스(WiMedia Alliance)' 방식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와이미디어 얼라이언스는 멀티밴드 OFDM 방식에 의한 UWB 사양을 책정하는 업계 단체로 이 방식은 'Certified Wireless USB'라고 불리는 UWB 사양에 채용되고 있다.

UWB 관련, 현재 와이미디어의 '멀티밴드 OFDM'과 UWB포럼이 추진 중인 'DS-UWB'가 표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CSR은 그 동안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UWB 표준은 IEEE IEEE 802.15.3a TG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인텔이 주축이 된 와이미디어 얼라이언스(MBOA)와 모토로라 · 프리스케일이 주도하는 'UWB 포럼'이 대립하면서 각자 자사 제안 기술을 표준규격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CSR은 자사 블루투스 칩의 차세대판인 '블루코어 6(BlueCore6)'에서는 기존 블루투스와 UWB 2개 무선방식을 조합시킨 칩셋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휴대폰 가입자 4억명 돌파

중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가 누계 4억명을 돌파했다.

신화통신이 중국 신식산업부 발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중국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누계 3억 9870만명으로 100명당 30.3대 꼴을 기록했다.

매월 300만~500만건의 신규 가입자 증가세로 미뤄 현재 4억명을 초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누계 휴대폰 가입자 수는 지난 2001년 3월 1억명을, 2002년 11월에 2억명을 넘어섰다. 2003년 10월에는 휴대폰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를 앞선 데 이어 2004년 5월에 3억명을 달성했다.

EA, "모바일 게임사업 본격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잠닷모바일을 인수한 미국의 일렉트로닉 아츠(EA)가 휴대폰용 게임 사업을 본격화 한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최대업체인 미국 일렉트로닉스 아츠(EA)는 지난 2월 22일, 휴대폰용 게임 사업을 본격화, 일본과 미국 · 유럽에서 1년 이내에 휴대폰용 게임 50개 타이틀 이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A는 최근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잠닷모바일을 인수한 업체로, 이번 발표로 EA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A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더 심스(The Sims)', 레이싱 게임인 '니드 포 스피드(Need for Speed), 액션 게임인 'FIFA 사커' 등을 모바일 게임으로 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코모, 07년도 PHS서비스 완전 중단

도코모가 2007년 하반기부터 PHS 서비스를 중단키로 확정 발표했다. 가입자들은 WCDMA로 이관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2만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

구체적인 서비스 종료일은 사용자 이용 현황을 검토한 후 결정된다. 도코모는 이미 작년 5월부터 PHS방식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日 모바일 와이맥스 도입 '박차'

일본 내 모바일 와이맥스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2월 27일,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 검토를 위해 정보통신심의회에 자문을 구했다고 발표했다.

총무성은 2.5GHz대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 이용을 위해 심의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통신방식은 '3G/3.5G를 넘는 전송속도와 주파수 이용 효율을 실현하는 것으로 상향 10Mbps, 하향 20M~30Mbps 이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와이맥스(모바일 와이맥스 포함)나 윌콤이 제창한 차세대 PHS 'iBurst'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무성 요청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주파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 밴드 등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 및 다수 사업자의 인프라 공용을 위한 기술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일본은 2.5GHz대 신규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와이맥스(IEEE 802.16e)'용으로 할당, 2007년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총무성은 같은 날, 1.5GHz대 3G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건도 심의회에 자문했다.

프리스케일 · 노키아 · 심비안 3G폰 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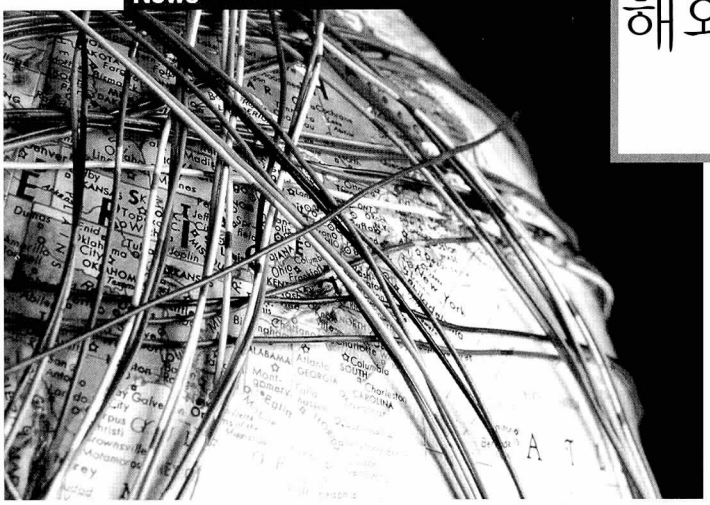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와 노키아 · 심비안 3사는 최근 프리스케일의 싱글 코어 모뎀을 이용해 중급 모델 시장을 겨냥한 3G폰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3사는 기대했다.

이번 공동개발은 통신 처리와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한 프리스케일의 'MXC300-30' 플랫폼을 기반으로 심비안의 휴대폰용 OS인 '심비안OS'와 노키아의 스마트폰용 플랫폼 '시리즈 60'을 지원토록 한다.

3사는 이번 개발을 통해 3G 시장확대에 따른 단말기의 가격 인하 및 개발기간 단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인도, 작년말 휴대폰 가입자 '7592만'

인도 이동전화 누계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월말, 약 75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간 279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매월 230만명 이상이 새로 가입한 셈이다.

인도통신조정위원회(TRA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바르티 텔레벤처스(Bharti Televentures)가 1630만명(점유율 21.5%)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인 BSNL이 1480만명, 최대 재벌계 업체인 릴라이언스 인포컴이 1467만명이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통화 가능 지역의 확대 및 잇단 요금인하, 휴대폰 가격 하락 등에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말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4893만명(연간 증가율 약 9%)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포함, 전체 전화 가입자 수는 약 1억 2500만명으로 집계됐다.(전화 보급률 11.4%)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83만 5000명으로 전년말 대비 17배 증가했다.

모토로라, 日 휴대폰 업체와 제휴 모색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일본 휴대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업체와 제휴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지난 2월 3일 모토로라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모토로라가 염두에 둔 업체로는 NEC와 마쓰시타 전기 기구 및 산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일본의 비율은 10% 정도. 2세대 기술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메이저 휴대폰 업체들의 참여가 없었다. 모토로라와 노키아도 그동안 일본 시장에 간헐적으로 휴대폰을 출시한 정도.

모토로라가 일본 시장 입성을 서두르는 이유는 NTT도코모가 3세대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일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도코모를 통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 아태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코모는 i모드 서비스를 통해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련 단말기를 일괄 조달하고 있다.

IBM · 소니 · 도시바, 32nm 이후 프로세서 공동개발

IBM과 소니 · 도시바가 32나노미터 이후 프로세서 공동개발에 나선다.

IBM과 소니 · 도시바 3사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32나노미터(nm) 이후의 첨단 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에 따라 3사는 소비자 시장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관련 신기술을 조기 개발해 이를 상품화한다는 방침이다.

IBM · 소니 · 도시바는 지난 5년간 셀(Cell)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 90 · 65나노미터 프로세서를 이용한 SOI(Silicon On Insulator) 기술 중심으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日 이통사, MNP '발등의 불'

일본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올 가을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비, 자사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월 27일 보도했다.

이는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이 일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NTT 도코모는 오는 6월까지 매장 면적을 확대한 전략점을 수도권 중심으로 약 60개 점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전략점은 자사 대리점 '도코모 숍'의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전시 면적을 기존 점포보다 넓혀 내방객이 상품을 비교하기 쉽도록 했으며, 내부장식도 고급감을 줬다.

이 신문에 따르면, 1개 점포당 투자액은 2000만~3000만엔(약 2억~3억원)에 달한다. 비용은 점포 운영주와 도코모가 각각 반씩 분담한다.

도코모에 따르면, 현재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4개 점포의 방문객 평균 수는 개장 전보다 약 20% 정도 증가했다.

보다폰도 11월말까지 점포 수를 도코모나 KDDI(au)와 동일한 2000개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中, TD-SCDMA 3G 채용 발표

중국이 자국의 제 3세대 방식인 TD-SCDMA를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내 3G 라이센스 발급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UPI 등 외신들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신식산업부는 TD-SCDMA가 자국 3G 표준의 하나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유럽의 W-CDMA, 북미 중심의 cdma2000에 더해 TD-SCDMA 개발을 계속해 왔다.

중국 정부의 이번 공식발표는 그동안 TD-SCDMA의 상용 수준을 이유로 3G 사업권 발급이 지연돼 왔다는 점에서 이 기술이 상용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신식산업부 한 관계자는 "TD-SCDMA 성능 등이 요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했다.

중국은 이 기술의 상용 채용이 2008년 중국 올림픽 이전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신은 분석가들 말을 인용, 이제 TD-SCDMA 네트워크를 구축, 실제 운용을 검증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가 그 결과를 토대로 TD-SCDMA 사업권을 먼저 발부한 후, 다른 2개 규격에도 3G 사업권을 할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토로라, 'SLVR L7' 싱귤러 독점공급

모토로라가 애플 컴퓨터의 아이튠즈(iTunes)를 탑재한 신형 '슬리버 L7(SLVR L7)'을 미국 이동전화 사업자인 싱귤러 와이어리스 전용으로 출시했다.

모토로라의 아이튠즈 탑재 폰 출시는 로커(ROKR) 이후 두번째다.

슬리버 L7은 모토로라의 초슬림폰 레이저(RAZR) 디자인을 채용, 두께 10mm, 무게 96g이다.

아이튠즈를 통해 PC에서 음악파일을 전송해 들을 수 있으며, 최대 100곡(7시간 분량)의 곡을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이 단말기는 컬러 LCD를 탑재했으며, VGA 카메라, 비디오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 외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했다.